

(4) 소음

- 기화식 46~62dB, 초음파식·가열식·복합식 37~44dB 수준
 - 가열식 제품은 작동 초반 소음이 클 수 있어 수면 사용 시 고려해야
 - 수면시간 동안 적정한 실내 습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으므로 가습기 작동 소음은 중요한 제품 선택정보 중 하나임.
 - (제품·가습방식별 소음) 소음(음향파워레벨)을 측정한 결과, 37~62dB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차이가 컸음.
- ※ 소음(음향파워레벨) 크기 차이
일반적인 사람이 소리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는 3dB 차이며, 소리 에너지는 2배 차이가 남.
- (초음파식 4개 제품) 신일전자(SUH-CLR4L) 제품은 37dB로 시험평가 대상 중 가장 소음이 적었고, 듀플렉스(DP-P590SH)·미로(MH7000) 등 2개 제품은 39dB, 쿠쿠전자(CH-GS301FW) 43dB의 순이었음.
 - (가열식 3개 제품) 초기 가열-최대 끓음-가습 안정화 등 단계에 따라 소음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음.
 - (초기 가열 단계) 수조 내부 가열 작동음, 물 끓는 소리 등으로 인해 소음이 점차 커지는 단계
 - (최대 끓음 단계) 물이 100°C에 도달하여 본격적으로 끓기 시작하는 단계로 전체 작동 과정 중 소음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단계
 - 르젠(LZHD-H85) 제품은 52dB, 스텐나(STN100A)·한일전기(GHSP-3300RR) 등 2개 제품은 55dB 수준으로 최대소음이 발생했음.
 - 최대소음 발생까지 스텐나(STN100A) 제품은 5분, 한일전기(GHSP-3300RR) 제품은 35분, 르젠(LZHD-H85) 제품은 40분이 소요됐음.
 - (가습 안정화 단계) 수조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가습 수증기 발생이 균일화되어 소음이 감소하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단계
 - 르젠(LZHD-H85) 제품은 39dB, 스텐나(STN100A) 제품은 40dB, 한일전기(GHSP-3300RR) 제품은 43dB 수준으로 소음이 감소하여 유지되었음.
 - 가습량이 안정화되기까지 르젠(LZHD-H85)·한일전기(GHSP-3300RR) 등

2개 제품은 최대 50분, 스테나(STN100A) 제품은 6분이 소요됐음.

- (복합식 3개 제품) 한경희생활과학(HAAN-HD100A) · 에어메이드(AMH-9002) 등 2개 제품은 38dB, [LG전자\(HY704RWUAB\)](#) 제품은 44dB 수준이었음.
- [LG전자\(HY704RWUAB\)](#) 제품은 가습 시작 시 최대 3분 동안 수조 내부 물을 100°C로 끓이는 과정에서 59dB의 최대 소음이 발생했음.
- (기화식 3개 제품) 오아(OHM-077IV) 제품이 46dB로 소음이 가장 적었고, 샤오미(CJSJSQ02XYK) 48dB, [다이슨\(PH05\)](#) 62*dB의 순이었음.

* 제품을 가습 · 공기청정 동시 작동 모드 및 10단계(1 ~ 10단계 중 가장 높은 모드)로 설정한 상태에서 측정한 소음임.

※ 소음 크기 비교(한국소비자원 품질비교시험 결과)

드럼세탁기의 소음은 평균 69dB, 전자레인지는 평균 57dB, 김치냉장고는 평균 35 ~ 41dB 수준임.

<소음>

가습 방식	브랜드	모델명	소음[dB] ¹⁾		
			일반	최대	가습단계별 소음 특성 그래프
초음파	듀플렉스	DP-P590SH	39	-	
	신일전자	SUH-CLR4L	37	-	
	미로	MH7000	39	-	
	쿠쿠전자	CH-GS301FW	43	-	
가열	한일전기	GHSP-3300RR	43	55	
	르젠	LZHD-H85	39	52	
	스테나	STN100A	40	55	
복합	한경희생활과학	HAAN-HD100A	38	-	
	에어메이드	AMH-9002	38	-	
	LG전자	HY704RWUAB	44	59 ²⁾	
기화	다이슨	PH05	62 ³⁾	-	
	오아	OHM-077IV	46	-	
	샤오미	CJSJSQ02XYK	48	-	

1) 음향파워레벨로 측정한 결과임.

2) 가습 작동 후 최대 3분 이내 100°C로 끓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

3) 가습·공기청정 기능이 동시에 작동되는 방식(가습 기능 단독 작동 불가능)